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2.(목) 12:00
(지 면) 2026. 7. 3.(금) 조간

‘우리나라 대표 섬’ 제주도에서 2027년 제8회 섬의 날 기념행사 열린다

- 현장실사, 발표 평가 등 절차를 통해 행사 추진 역량 종합적으로 검토
- 성산일출봉 일대 우수한 행사 기반 시설, 풍부한 개최 경험 높이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2027년 8월 개최 예정인 ‘제8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8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섬의 날 전후로 섬 지역을 순회하며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에는 섬 전시관 운영을 비롯해 문화·예술 공연, 체험 행사, 학술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제1회(2019년) 전남 목포·신안, 제2회(2021년) 경남 통영, 제3회(2022년) 전북 군산, 제4회(2023년) 경북 울릉, 제5회(2024년) 충남 보령, 제6회(2025년) 전남 완도, 제7회(2026년) 전남 여수 개최

>> 공정한 공모 거쳐 제8회 섬의 날 개최지로 우수한 기반 시설 갖춘 ‘제주’ 선정

이번 개최지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공모 절차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됐다. 전문가 현장실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먼저, 제주도는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망과 다양한 숙박·편의시설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 최적화된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행사 예정지인 성산일출봉 잔디광장 일대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치 있는 자연유산이다. 탁 트인 푸른 바다와 성산일출봉이 멋지게 어우러진 경관을 자랑하여 섬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꼽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와 문화·관광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며 탄탄하고 안정적인 행사 운영 역량을 증명해 온 점도 커다란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한라산과 오름, 해안 절경 등 독특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문화를 간직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 지역이다. 아울러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추자도 등 저마다 독창적인 정취를 지닌 부속 섬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해양 문화와 생태 자원, 고유의 해녀 문화 및 따뜻한 지역 공동체가 어우러진 풍성한 섬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 섬의 날 행사는 이러한 제주 섬 문화의 특색을 생동감 있게 살려 섬의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 올해 여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제7회 섬의 날 행사 개최

한편, 올해 치러지는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낭만충전, 섬’을 주제로 8월 6일부터 9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과 이야기 속에서 설렘과 감성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전시·체험 행사와 신나는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아울러 ‘백섬백길’ 걷기, 어린이 섬 그림그리기 대회, 섬 발전 학술대회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오동도, 금오도, 하화도 등 개성 넘치는 섬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가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우리나라 섬의 진정한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섬의 날 행사는 섬의 가치와 매력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아름다운 제주에서 열리는 만큼, 더 많은 분이 방문하셔서 섬의 진정한 정취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더 많은 국민이 섬을 찾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유정 (044-205-3530)
		담당자	서기관	정태욱 (044-205-3524)

